

# 점멸(點滅)하는 극장, 그 소등의 기억

김예지

한 번의 공연은 순간으로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번 축적된 연속성은 극장의 시간을 만들어 왔다. 40년간 수많은 공연을 올리고 내린 아르코예술극장에는 그 안팎을 가로지르며 남은 세월의 흔적들이 깃들여 있다. 극장의 객석과 층계, 입구에는 어떤 자취가 남았나. 물증으로서 극장을 이루는 시설들이 증언하는 역사는 무엇인가.

이제 이 극장의 수직으로 꽂혀 있던 액자형 무대를 수평으로 뉘여 보자. 그리고 조명이 비추지 않던 곳에서 먼지처럼 켜켜이 쌓였을 기록들을 꺼내 보이자. 미술사학자이자 미디어이론가인 노암 엘콧(Noam M. Elcott)에 의하면 근대인들은 조명 장치의 발명을 통해 두려움의 대상이기만 했던 자연 속 암흑을 정복하는 한편, 미처 빛이 닿지 않아 그늘진 모서리에서 몽환과 승고의 효과를 내는 ‘인공적 어둠(artificial darkness)’을 고안해 냈다. 고도로 통제된 어둠은 이후 암실, 극장 등의 근대적 설비에 동원되며 근대예술의 제작과 수용에 기여해 왔다.<sup>(1)</sup> 아르코예술극장 역시 “공연활동에 큰 도움을 줄” “현대식 기재의 메커니즘”<sup>(2)</sup>을 갖춘 기관으로서 조성되었다. 국내에서는 프로시니엄 무대를 세운 초창기 극장 중 하나로, 그 사명은 “문화적 민주복지 구현”<sup>(3)</sup>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소등된 ‘어둠’의 역사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명된 역사만큼이나 중요하다.

틀에 갇힌 무대 이면, 음영 진 극장의 내막을 드러내기 위해

무대만을 빛내던 조명을 떨하고 불 꺼진 극장과 마주했다. 그리고 어둠의 회로 속에서 현상된 기록들을 헤집어 아이패드와 모니터의 블랙 스크린에 환히 띄웠다. 그렇게 밝혀진 단상에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이곳을 뺨돌던 큰 이름들의 둔중한 몸짓이 아닌 휘발된 줄 알았던 이들이 남긴 사소한 잔해와 파편들이 올라 있다. 이 가로로 누운 프로시니엄에는 아르코예술극장의 역사 속에서 의도적으로 소거되었던 객석의 관객이, 조정실의 장치가 손에 잡힐 듯 생생히 소환되어 있다. 건축적 위계를 무화하고 맞붙은 장소들을 잇는 여기 둥글린 모양의 수평선에서 누락되고 소멸된, 미시적인 것들이 중첩해 있는 얇따란 단층들을 한 겹씩 뜯어보자. 또 공연시간표 사이사이 겹게 비워진 시간들에 주목하자. 10년, 20년, 혹은 30~40년 전, 공연 전후의 공백기에 극장의 곳곳으로 향하던 이들은 누구였나. 극(劇)이 상연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찾아 들어와 무엇을 했나.

아르코예술극장은 1981년 개관부터 ‘전통문화의 이해’를 위한 문예교양강좌와 해외에서 수입한 셰익스피어극 시리즈 및 고전적 음악·무용 공연의 ‘비디오 필름감상회’를 기점으로 시민을 교육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공공성 구현에 힘써왔다. 초기에는 “강력한 국가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라는 인식에서 주부와 여대생의 교양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본격적인 문화시설 확충과 지방화에 따라 조명·음향·무대·문화시설 기획자 등 전문적인 문화 촉매

요원 연수를 시행하며 평생 교육과 전문 교육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갔다.<sup>(4)</sup>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유치나 개발, 정립 등을 담당하는 문화행정 실무자들의 역할과 그들이 제공하는 문화를 흡수하는 향수 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up>(5)</sup>는 신념은 꽤 오랫동안 극장의 테두리 안에서 고수되어 왔다. 그동안 “어진 어머니”가 되기 위해 “하루 10분만이라도 책 읽는 습관을 기르자”<sup>(6)</sup>며 불러 얹혀졌던 여성들은 오래지 않아 ‘마로니에 전국 백일장’을 통해 등단의 기회를 거머쥐게 되었다. 무대예술 전문인들은 해외 전문가 초빙 워크숍으로써 세계적 경쟁력마저 도모하고자 했다.

극장의 조명이 무대를 향해 치우쳐 있던 40년. 어스름 속에서도 이곳 문예회관에서 민족 문화의 주체이자 세계적인 축전의 구성체로서 배양된 문화시민들은 공연법 개정과 각종 공연예술 축제라는 활로를 타고 소극장을 위시한 대학로 거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이내 아르코예술극장을 중심으로 기초 예술 분야 신예들을 촉망하는가 하면 근래에는 잊히고 배제되었던 이름들을 호명하는 주역으로까지 거듭났다.

인위로 된 어둠이 깔린 여기 이 혼돈과 부재의 시공간에서, 오래전 밝았던 여명에 눈 맞춰 보자. 그리고 그 빛으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비추어 보자. 아르코예술극장의 과거와 현재를 전주기 위해 모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곳에 10년, 20년을 텃입혀 갈 수 있을까. 극장의 어디에 머물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 ■

- (1) Noam M. Elcott, *Artificial Darkness: An Obscure History of Modern Art and Media*,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 (2) 「옛 서울대자리에 「문예회관」 開院: 연극·무용·음악 등公演예술전당으로」, 『동아일보』 1981.4.2.
- (3) 「文化先進」겨울 國民像 정립, 『경향신문』 1985.1.30.
- (4) 1979년부터 제3대 문화예술진흥원장을 역임한 송지영(宋志英) 당시 문예진흥원장은 1983년 대한어머니회 창립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知 - 강력한 국가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어머니의知」 주제: 대한어머니회 창립 25주 學術 세미나」, 『매일경제』 1983.4.1.
- (5) 조은희, 「문예진흥원 문화학교 - 한국적 문화 교양주의의 확립」, 『문화예술』 통권 156호, 1992년 7월.
- (6) 앞의 글.

김예지

전시의 장소와 제도를 탐구하는 글을 쓰며, 기존 미술 제도에 완전히 자리 매기지 못한 시각예술 매체들의 전시 방법과 제도화의 방식에 관심이 있다. 전시 《초·극적 단상》(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2019)을 기획했다.